

우수로니상

Cider

▶ 신해든(서울신석초등학교), 최우영(서울양전초등학교),
윤주하(서울개일초등학교), 김아린(우촌초등학교)

리포트

E-book(전자책)은
종이책보다 경제적이다?!

웹툰

‘싸다왕’ 도서편- 전자책과 종이책의 대결



팀 소개 인사 및 각오

진실의 맛을 톡톡! 시원하게 쏘는 청량한 팩트체커, 팀 '사이다'입니다. 저희는 4명의 친구가 모여 이 팀을 만들었습니다. 팀명 '사이다'에는 진실을 시원하게 밝혀내겠다는 의미와 함께 4명의 친구 '사이'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요즘에는 가짜 뉴스가 많아서 진짜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습니다. 어떤 잘못된 정보는 진짜인 것처럼 보여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변에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들은 없을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정말 사실인지 검증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팀은 지난해에 팩트체크를 경험해 본 친구들과 처음으로 도전해보는 친구가 함께합니다. 경험이 있는 친구가 처음 해보는 친구에게 알려주고, 또 새로운 생각을 서로 나누며 함께 진실을 향해 다가가겠습니다. 우리가 찾아보고 싶은 정보를 때로는 발로 뛰면서, 때로는 다양한 생각과 질문들로, 때로는 통계 수치와 전문가를 찾아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 폭넓은 정보를 찾는 사이좋은 팩트체커, 사이다가 되겠습니다.

팩트체크 리포트

E-book(전자책)은 종이책보다 경제적이다?!

팩트체크 계획 수립하기

☞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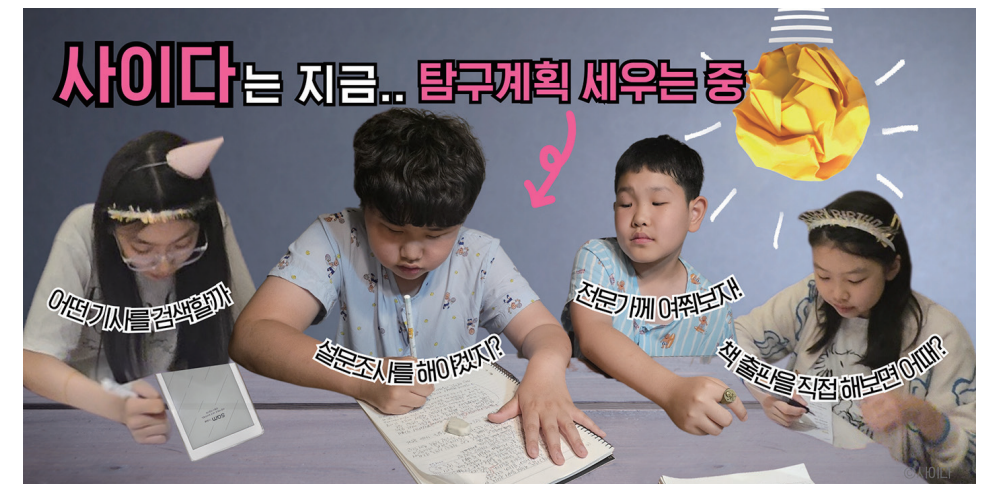
2025년부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된다고 한다(교육부 보도자료 24.01.29). 그리고 보니 예전에는 종이로 된 책만 읽었는데, 요즘은 전자사전부터 웹툰까지 핸드폰과 태블릿, 그리고 전용기기를 사용해서 독서한다.

우리는 궁금해졌다. 종이책은 어떻게, 그리고 왜 E-book(전자책, 이하 '전자책')으로 대체되고 있는 걸까. 친구들은 '전자책이 종이책보다 만드는 돈이 덜 들어서 그런 걸까'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래서일까?

▶ 우리는 'E-Book(전자책)은 종이책보다 경제적이다?'라는 주제로 팩트체크를 해보기로 했다. 사람들은 '전자책'과 '종이책' 중 어떤 것을 더 [경제적]이라 생각하는지, 그 생각이 과연 맞는 것일지 자료 조사와 여러 방법의 탐구를 통해 알아보려 한다.

☞ 팩트체크 방법에 대한 계획

1. 검색: 뉴스 기사, 한국출판연구소, 문화체육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국무총리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의 누리집에서 ['전자책'과 '종이책'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본다.



2. 설문조사: 전자책이 종이책보다 경제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 주변 사람들을 직접 설문조사] 해본다. 온라인, 전화, 또는 직접 만나 물어본다.

3. 전문가 인터뷰: 전자책이나 종이책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를 찾아 인터뷰해 본다. 출판사 관계자, 전자책 플랫폼 회사 직원, 관련 학과 교수님들, 출판 연구소 관련 직원에게 [전자책과 종이책의 제작 비용, 경제성, 장단점] 등을 질문한다.

4. 직접 가보기: 파주 출판단지를 방문하여 [실제 종이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체험]해 보고 종이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한다.



① 찾아보기

물어보기

клик해보기

뉴스 기사에 대한 근거 조사

[뉴스 1] 김종화 기자 “종이책이 전자책보다 더 좋다”.. 압도적 선호도”,
아시아경제, 2020년 6월 16일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61611431375269>

▶ 팩트체크: 한국제지연합회가 종이의 날을 맞아 온라인으로 실시한 ‘소비자의 종이 매체 호감도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88.4%가 전자책보다 종이책을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종이 매체를 디지털 매체보다 더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종이가 주는 정감과 편안함 때문’이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

사이다의 비판적 읽기 사람들이 아직 종이책을 전자책보다 안정감 있고 편하다고 생각하는 걸 알게 되었다. 우리도 같은 이유로 아직은 종이책이 더 좋은 것 같다.

[뉴스 2] 송현경 기자 “책 안 읽는 사회, 방치 안돼... 독서진흥원 설립해야”
내일신문, 2024년 6월 13일

<https://www.naeil.com/news/read/513300>

▶ 팩트체크: 2023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 종합독서율(종이책, 전자책, 오디오 북에 관계없이 1년에 1권 이상 독서를 하는 사람의 비율)은 43.0%로 나타났다. 종합 독서율은 2013년 72.2%를 기록한 이래 2021년에는 47.5%로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이다. 20대의 경우, 종이책보다 전자책을 더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책을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밀리의 서재’ 등 가성비 좋은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를 선호했다. 반면, 미국의 경우 2011년부터 10여 년 동안 70%대에서 큰 변화가 없고, 유럽도 60~70%의 독서율을 나타냈다. 미국과 유럽의 독서율이 한국

보다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전자책 독서율의 경우는 올라가다가 다소 주춤한 상태이며 오히려 오디오 북 독서율이 올라가고 있다.

사이다의 비판적 읽기 20대들은 다른 어른들과 달리 전자책을 더 선호한다. 전자책은 종이책보다 많은 양의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가격까지 저렴해서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유로 10대들도 앞으로는 전자책을 더 선호하게 될지 궁금하다. 또 20대가 30대가 되어서도 같은 생각을 할지 궁금하다.

[뉴스 3] 김세원 기자 “달라진 독서 환경, 대세는 ‘전자책 구독 시장’”,
데일리 POP, 2024년 2월 22일

<https://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75221>

▶ 팩트체크: 전자책 구독 플랫폼 ‘밀리의 서재’는 2023년 3분기 기록했던 누적 매출 406억원에 영업이익 75억원에 이어, 지난해 매출 569억원, 영업이익 105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저렴한 요금제와 편의성 등을 이유로 전자책 구독이 활성화되고 있다.

사이다의 비판적 읽기 밀리의 서재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 종이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설문조사를 보니 전자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 정부가 성인들의 독서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세대별로 좋아하는 유형의 책을 출판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든다. 어른들의 독서를 늘리려면 어떤 정책이나 이벤트를 하는 게 좋을지 생각해 보고 싶다.

[뉴스 4] 김이진 작가, <뉴스G> 전자책 vs 종이책, 무엇을 읽을까?

EBS 뉴스, 2015. 01. 23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10286327/N>

▶ 팩트체크: 전자책과 종이책, 태블릿으로 단편 소설을 읽는 속도를 비교해 보니 종이책을 읽는 속도가 가장 빨랐지만,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전자책은 보관과 구입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어린아이에게는 소리와 움직임이 있는 디지털 그림책은 책의 내용보다 기기 조작에 관심을 더 느끼게 되므로 종이책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전자책의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 깊은 수면의 시간이 짧아

지고 수면 호르몬도 줄어드는 실험 결과도 있었다. 이에 따르면 잠들기 전에는 종이책으로 독서하는 것이 전자책의 피해를 줄이는 안전한 방법이라 하겠다.

사이다의 비판적 읽기 전자책을 읽으면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종이책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다.

[뉴스 5] 이성우 기자 “구입보다 구독, 순위보다 개인 맞춤... 요즘 도서 시장 트렌드”, Tech M, 2024년 4월 6일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Amp.html?idxno=122695>

▶ 팩트체크: 성인 독서량은 줄어드는데 전자책 인기는 상승세이다. 특히 MZ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이전 세대보다 전자책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 이들은 콘텐츠를 소비할 때도 단순히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이 가능한 구독을 선호한다. 밀리의 서재는 AI 기술을 도입해 독자의 취향과 관심사에 딱 맞는 책을 추천하고 읽어야 할 이유까지 알려준다.

사이다의 비판적 읽기 밀리의 서재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한다고 하니 더욱 흥미로울 것 같다. 전자책만의 장점이 있다는 것을 배웠다.

[뉴스 6] 이진휘 기자 “전자책 ‘밀리의 서재’가 종이책 펼친 까닭은”, 탐데일리, 2024년 4월 26일

<https://www.topdaily.kr/articles/97226>

▶ 팩트체크: 밀리의 서재는 전자책을 먼저 선보인 후 흥행에 힘입어 종이책으로 출간하는 ‘선 전자책 후 종이책’ 전략을 펼쳐왔다. 구독 경제와 독서방식의 변화가 함께 일어나는 출판시장에서 전자책과 종이책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겠다는 목표이다.

사이다의 비판적 읽기 밀리의 서재가 아주 현명한 시도를 하는 것 같다. 종이책으로 만들어서 안 팔릴 수도 있으니 먼저 비용이 적은 전자책으로 만들었나 보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똑똑한 시도라고 생각한다. 나도 재미있게 읽은 전자책을 종이책으로도 가지고 싶을 것 같다. 그렇다면 정말 전자책이 더 경제적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혹시 다른 측면으로 바라볼 수는 없을까?

[뉴스 7] 김정한 기자 “‘뜨는’ 전자책, ‘지는’ 종이책... 출판시장 판도 변화 가속”, 뉴스1, 2024년 1월 1일

<https://naver.me/xWBWKK2N>

▶ 팩트체크: 최근 몇 해 동안 종이책 이용자 수는 감소했지만, 전자책 소비자는 늘고 있다. 가장 큰 요인은 출판 콘텐츠 소비자와 독서 패턴의 변화다. 전자책은 접근이 용이하고, 공간 효율성을 제공하며, 가격 대비 효용성이 높다. 하지만 보안 취약성과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어야 전자책이 출판 생태계에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평가이다.

사이다의 비판적 읽기 전자책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보안이나 창작자의 권리는 아직도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것 같다.

[뉴스 8] 김민수 기자 “출협 ‘전자책 유출 피해 보상 만족스러운 결과 못 내 송구’”, 노컷뉴스, 2024년 5월 20일

<https://www.nocutnews.co.kr/news/6147464>

▶ 팩트체크: 온라인 서점 알라딘에서 일어난 전자책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 웹서버와 뷰어 SW 취약점을 이용해 암호화된 전자책을 암호화되기 이전으로 복호화한 뒤 전자책 5천 권을 텔레그램에 무단 공개한 사건이다. 현재 많은 출판 유통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 보호 지원을 받고 있지만 전자책에 대한 자체적인 보안 관리 노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사이다의 비판적 읽기 전자책과 종이책이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지만, 전자책의 단점은 해킹을 당하는 등의 범죄에 이용되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단점으로 생기는 피해는 전자책이 확산 속도가 더 빠르고 규모도 큰 것 같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종이책과 전자책 모두 사람들이 더 철저히 가져야겠다.

[뉴스 9] 오현주 기자 “전자책은 얼마나 친환경적일까.. 연간 22권 대체 필요”, 데일리 e뉴스, 2021년 12월 14일

<https://www.daily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56>

▶ 팩트체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책 단말기 1대]의

3년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종이책 63권] 분량 정도다. 1년으로 계산하면 한 사람이 연간 22권의 전자책으로 대체해야 비슷한 수준의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1년에 22권 미만의 종이책을 읽는 사람은 전자책을 이용할 때 오히려 탄소 배출량이 많아질 수 있는 셈이다.

사이다의 비판적 읽기 전자책이 훨씬 친환경적인 줄 알았다. 하지만 전자책이 종이책 63권의 분량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탄소 배출량을 생각한다면 평소에 책을 적게 읽는 사람은 종이책을 읽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책을 많이 읽는다면 전자책이 경제적인 것을 알게 되었다.

[뉴스 10] 서민을 기자 “종이책 vs. 전자책... ‘무엇이 더 친환경 독서법일까?’”, 독서신문, 2019년 11월 26일

<https://www.reader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381>

▶ 팩트체크: 과거에는 나무를 베어서 종이를 만드는 것이 환경을 해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요즘은 나무를 관리하는 방법이 좋아지면서 이런 생각이 바뀌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종이의 75%는 재활용된 폐지로 만들고, 나머지 25%는 특별히 키운 나무로 만든다. 종이책과 전자책을 비교하면 종이책이 전자책보다 온실가스를 덜 배출한다. 하지만 전자책전용 단말기(아이패드, e북 리더기 등)는 종이책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사이다의 비판적 읽기 기사 제목을 보고 처음에는 전자책이 좀 더 좋을 것이라 예상했다. 왜냐하면 종이는 나무를 많이 베어야 해서 환경에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활용되는 종이의 비율이 높고, 따로 조림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자책을 만드는 것이 환경에 좋을 줄만 알았는데,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것을 봐서는 종이책보다 친환경적이라 할 수 없을 것 같다.

[뉴스 11] 이해나 기자 “종이책 아닌 전자책 볼 때... ‘독해력’ 떨어지는 까닭” 헬스조선, 2023년 3월 17일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3/17/2023031701648.html

▶ 팩트체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전자책을 볼 때는 눈과 화면의 거리를 40cm

이상 유지하고, 30분마다 휴식을 취하는 게 좋다. 전자책을 읽으면 종이책을 볼 때보다 눈 피로가 최대 9배까지 심하다는 연구도 있다. 의식적으로 틱틈이 심호흡하는 것도 중요하다. 스마트폰으로 전자책을 읽었을 때 주의력이 강제로 높아지면서 심호흡 덜 하게 되고, 이에 따라 뇌의 전두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서 독해력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사이다의 비판적 읽기 전자책을 오래 보고 있으면 꼭 눈을 비비게 될 때가 있다. 눈 건강에는 전자책이 종이책보다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자책이 독해력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이 놀라웠다.

[뉴스 12] 헬스조선 편집팀, “전자책이 종이책보다 더 부담된다! 알고 보니...” 헬스조선, 2012년 9월 14일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12091302074

▶ 팩트체크: 전자책은 대체로 종이책보다는 가볍지만, 장시간 사용하면 손목에 무리가 갈 수 있다. 또 책장을 넘기는 동작보다 화면을 터치하는 동작이 손가락에 더 많은 힘이 들어간다. 또 전자책을 보느라 목을 길게 빼면 거북목이 될 위험이 크다. 전자책 증후군을 피하려면 사용 시간을 20~30분으로 조절하고 5분 정도 쉬면서 경직된 목과 어깨, 허리를 스트레칭하는 것이 좋다.

사이다의 비판적 읽기 전자책은 사용하는 사람이 주의하지 않으면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자책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용하기에 대한 안내가 있으면 좋겠다.

[뉴스 13] 김길원 기자, [건강이 최고] 자외선·스마트폰 멀리해야 백내장 늦춘다 연합뉴스, 2017년 6월 10일

<https://m.yna.co.kr/view/AKR20170609139700017>

▶ 팩트체크: 우리 눈 속의 카메라 렌즈에 해당하는 투명한 수정체가 흐려진 상태를 말하는 백내장은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에 해당한다. 그런데, 최근 40-50대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서구화된 식습관 등으로 인한 성인병의 증가, 디지털 모니터 기계 사용의 증가가 그 원인이다. 눈에 자외선을 차단하고 스마트폰, 태블릿 PC 사용을 의식적으로

줄이는 생활 습관이 백내장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

사이다의 비판적 읽기 모니터를 많이 보고, 전자책을 안 볼 수가 없는데, 노인들이 주로 걸리는 병인 백내장에 걸리는 나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니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또, 주변의 친구들도 미리 알고 대처 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책이나 논문 자료

박유리 외 4인, 「녹색성장을 위한 전자책 시장장 활성화 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0
<https://www.kisdi.re.kr/report/view.do?key=m2101113024153&arrMasterId=3934560&masterId=3934560&artId=530975>

• 전자책 단말기의 경우 사용단계를 제외한 탄소 배출량이 25.49kg인 것으로 나타났고, 300쪽 분량의 종이책인 경우 1권당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약 0.4096kg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자책 단말기의 평가 기간인 3년을 기준으로 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00쪽 분량의 종이책을 약 63권을 소비할 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동일하다. 그러나 전자책 콘텐츠 1권을 읽는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은 종이책의 1.1%에 불과하므로 이후의 독서는 종이책에 비해 권당 100배 정도의 이산화탄소저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p.95)

〈표 3-14〉 전자책 단말기와 종이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교

단계	전자책 단말기(1대)	종이책(1권)
원료 및 생산단계	25.48kg CO ₂	0.38kg CO ₂
수송 및 유통 단계	0.013kg CO ₂	20.96g CO ₂
사용단계	4.56g CO ₂	0
재활용 단계	0.0016kg CO ₂	0*
합계	25.499kg CO ₂	0.4096kg CO ₂

주: *는 종이책이 사용 후 재활용되어 타 제지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경우의 저감효과는 포함하지 않음

• 출판산업의 패러다임이 전자책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적 측면에서 전자책 시장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전자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판서비스산업의 생산유발계수(2005년 기준)는 2.30으로 서비스업 평균인 1.69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취업·고용 유발계수 또한 19.5와 14.6으로 서비스업 평균인 18.4와 12.6을 상회한다(이병희·문제철, 2009). 여기에서의 출판

서비스는 산업연관표의 출판서비스로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의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을 나타내므로 종이책의 생산유발계수와 취업 및 고용유발계수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p.189)

▶ 팩트체크: 전자책 단말기와 종이책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비교한 연구를 통하여 [뉴스 9]와 [뉴스 10]에서 보도한 내용에 관한 배경과 산출과정 및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관련 사이트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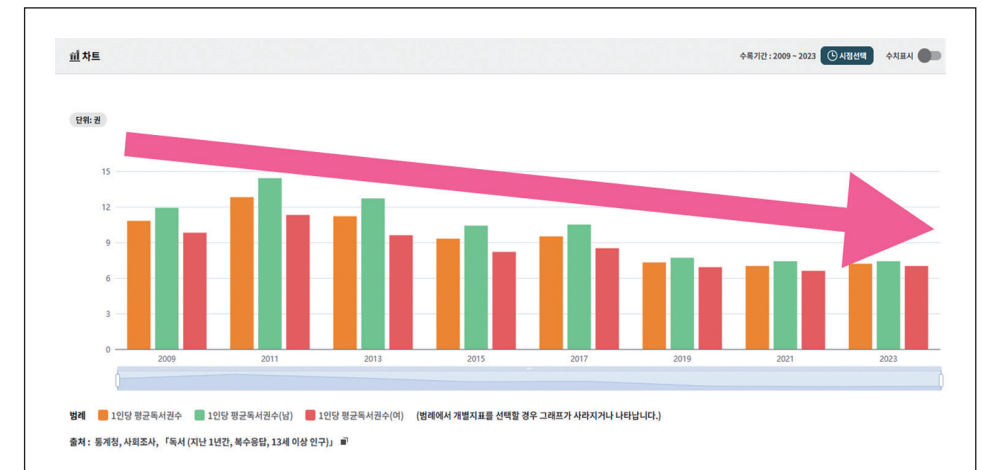
1. 통계청 KOSIS 국가통계자료: 'KOSIS 100대 지표'

① 자료 출처: KOSIS 홈페이지(<https://kosis.kr/visual/nsportalStats/main.do>) 자료 참고

②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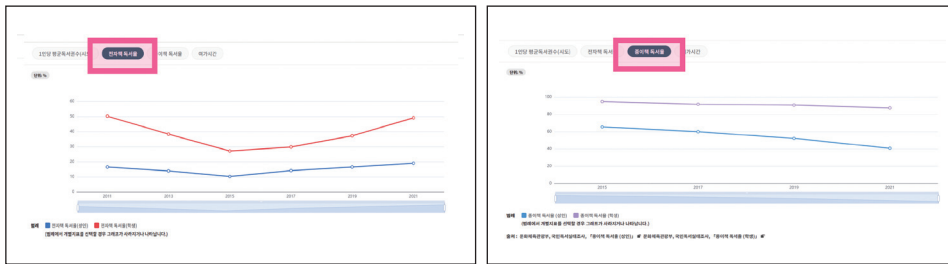
▶ 1인당 평균 독서권수

• 과거에 비해 독서를 하는 사람은 점차 감소 추세이다.



• 전자책 독서율의 경우, '15년 기준 성인은 소폭 상승하였고, 학생의 경우 약 1.5배 이상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종이책 독서율의 경우, 성인은 계속 감소 추세이고, 학생은 아주 약하게 감소 추세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 ‘2023 국민독서실태조사’

① 자료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s://www.mcst.go.kr>) 게시 자료 참고

②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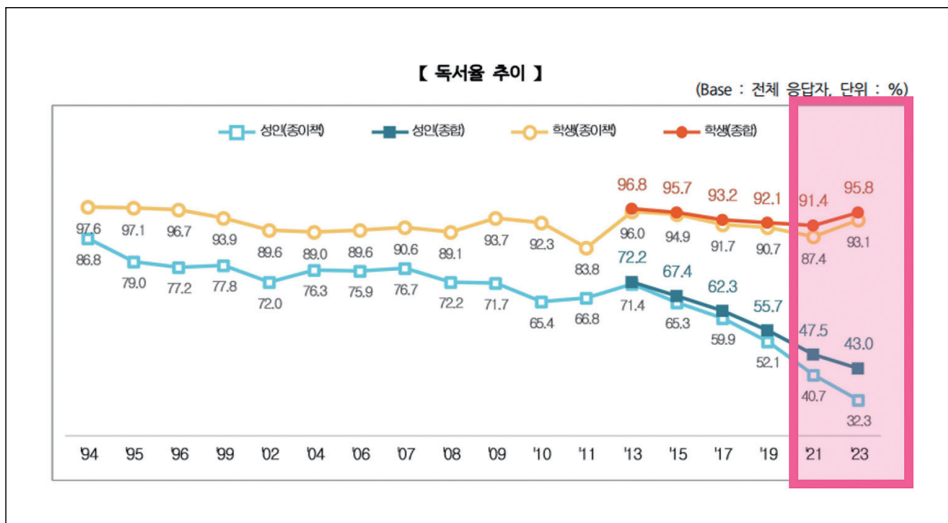
▶ 조사 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과 초등학생(4학년 이상) 및 중, 고등학생 2,400명

▶ 연간 독서율

• 지난 1년간(22.09.01~23.08.31) 초, 중, 고교 학생의 종합 독서율(종이책+전자책+오디오북)은 95.8%, 성인의 경우 종합 독서율 43.3%로 ‘21년 대비 성인은 4.5% 감소하였고, 학생은 4.4%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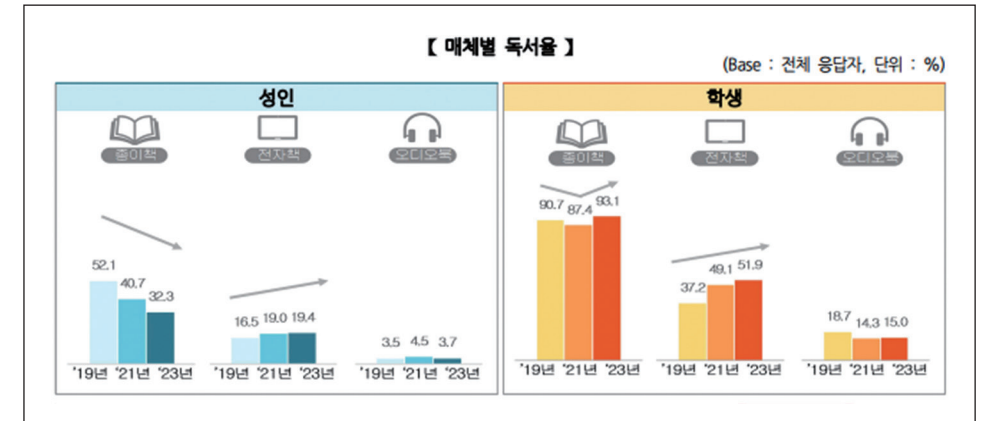
• 성인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독서율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 학생은 독서율이 상승으로 전환하고 있다.



▶ 매체별 독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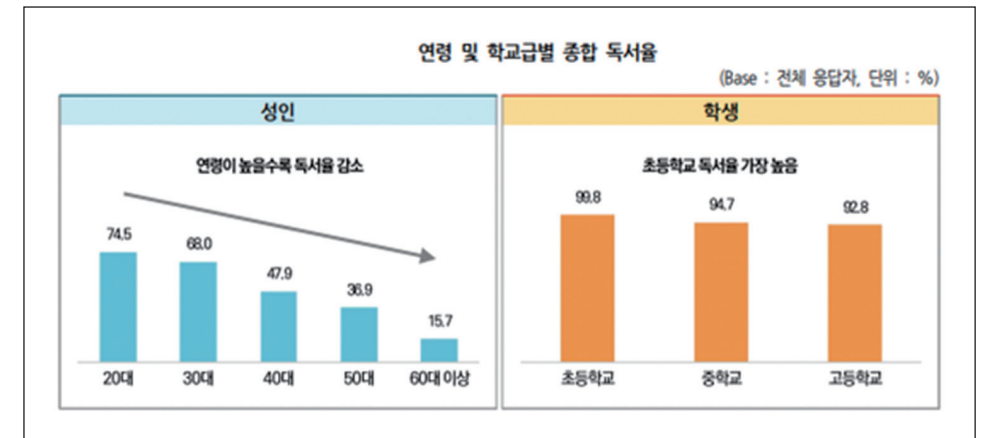
• 성인의 종이책 독서율은 2년 전 대비 감소(40.7%→32.3%)하였으나, 전자책 독서율은 (19.0%→19.4%)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생의 경우, 종이책(87.4%→93.1%)과 전자책(49.1%→51.9%) 모두 2년 전 대비 상승했다.



▶ 연령 및 학교급별 종합 독서율

• 성인은 연령이 높을수록 독서율이 낮게 나타났고, 학생의 경우, 학교급이 높아 질수록 독서율이 소폭 하락하여 초등학교의 독서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독서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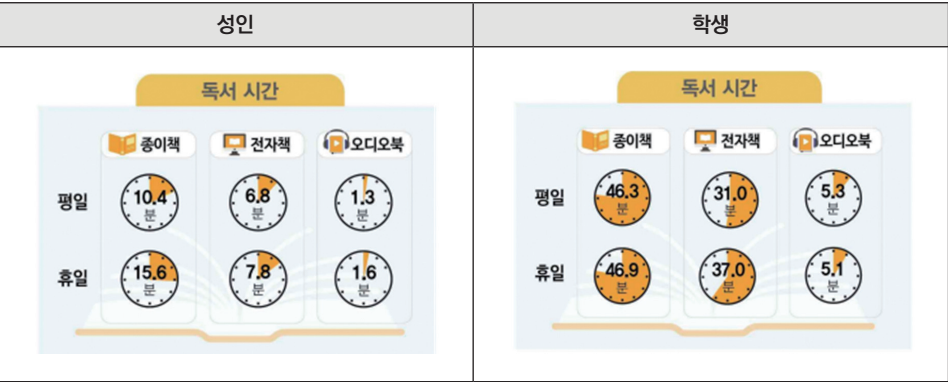
• 평일 기준 하루 평균 독서시간(종이책+전자책+오디오북)은 성인 18.5분, 학생 82.6분으로 ‘21년 대비 성인 1.9분 감소, 학생은 10.5분 증가했다.

• 특히, 성인 대비 학생의 전자책 비율이 높으며, 성인의 경우는 바쁜 일상 속에서 책을 접하는 빈도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독서 시간 】

(Base : 전체 응답자, 단위 : 분)

	성인		학생	
	평일	휴일	평일	휴일
종이책	10.4	15.6	46.3	46.9
전자책	6.8	7.8	31.0	37.0
오디오북	1.3	1.6	5.3	5.1
종합	18.5	25.0	82.6	89.0



▶ 연간 종합독서량

• 성인 3.9권, 학생 36.0권으로 ‘21년 대비 성인은 0.6권이 줄었고, 학생 1.6권이 늘어났다.

【 매체별 독서량 추이 】

(Base : 전체 응답자, 단위 : 권)

	종이책			전자책			종이책 + 전자책			종이책+전자책+오디오북		
	'19년	'21년	'23년	'19년	'21년	'23년	'19년	'21년	'23년	'19년	'21년	'23년
성인	6.1	2.7	1.7(1↓)	1.2	1.5	1.9(0.4↑)	7.3	4.2	3.6(0.6↓)	7.5	4.5	3.9(0.6↓)
학생	32.4	24.8	26.2(1.4↑)	5.6	8.2	7.8(0.4↓)	38.8	33.0	34.0(1↓)	41.0	34.4	36.0(1.6↑)

▶ 도서 구입량 및 구입비

- 국민이 1년 동안 구입한 도서는 성인 기준으로 종이책 1권, 전자책 1.2권, 오디오북 0.2권 수준이다.
- 학생은, 종이책 4.8권, 전자책 2.4권, 오디오북 0.4권의 도서를 구입했다.

• 도서 구입 비용은 대체적으로 1년에 5만원 이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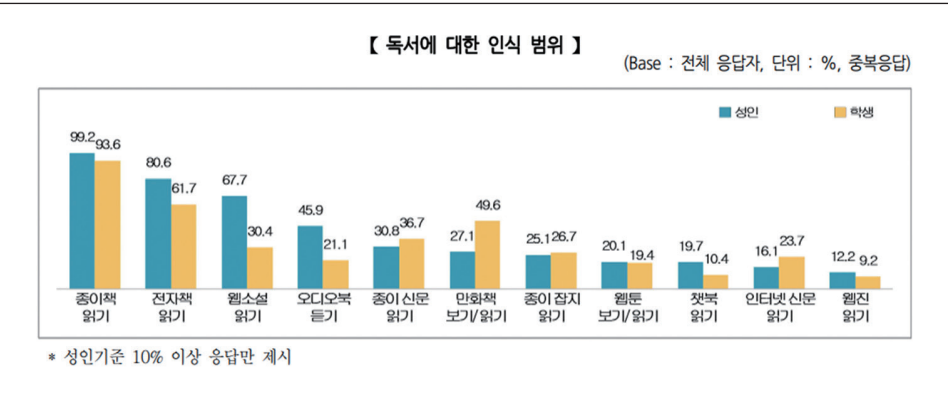
도서 구입량 및 구입비

(Base : 전체 응답자, 단위 : 권, 만 원)

	구입량(권)		구입비(만 원)	
	성인	학생	성인	학생
종이책	1.0	4.8	1.8	5.6
전자책	1.2	2.4	0.6	1.1
오디오북	0.2	0.4	0.1	0.1

▶ 독서에 대한 인식 범위

• 성인과 학생 모두 전통적 형태인 ‘종이책’과 ‘전자책’에 대한 인식이 높은 가운데, 학생은 ‘종이신문’과 ‘만화책’에 대한 인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찾아보기 전자책에 대해 알아보기〉

우리는 전자책과 종이책 중 어느 쪽이 더 경제적인지 알아보기에 앞서, 전자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1. 전자책은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

전자책이 실제로 사용된 것은 1971년 미국에서 시작된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이다. 저작권이 만료된 고전 등을 전자책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디지털로 책을 읽는 길이 열린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초반 책 내용을 담은 CD가 판매되고, 1990년대 중반부터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전자책은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전자책 전문업체

도 이때 등장했다. 이 때는 컴퓨터 화면으로 콘텐츠를 봐야 했지만 파일 형태로 책을 소장할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1998년 이후 전자책 전용 단말기가 출시되기 시작했다. 2007년 아마존에서 ‘킨들’을 선보이며 본격적인 전자책 시대가 열렸다.

2.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전자책 기기는 뭘까?

독서를 언제 어디서나 즐기고 싶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좋다. 하지만 화면이 종이 책보다 작고 쉽게 눈이 피로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미지, 삽화가 많은 책이라면 컬러를 지원해 주는 태블릿, PC를 이용하면 좋다. 마지막으로 전자책을 위한 전용기기가 바로 전자책 리더기이다. 특별한 잉크를 사용해 마치 종이책을 읽는 듯한 느낌을 주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는 달리 눈부심이 없어 장시간 독서를 해도 눈이 편한 게 가장 좋은 점이다. 그러나 따로 기기를 구매해야 하므로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 전자책 리더기 종류와 가격: 전자책 리더기의 크기와 저장용량, 출시년도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난다. 세부 기기별 가격도 좀 더 조사해 보았다.

크레마 페블 (6인치)	219,000원
리디페이퍼 (6인치)	192,000원
교보 SAM(6인치 LUNA)	170,000원
아마존킨들(6.8인치, 2022년)	150,000원
오닉스북스(7인치)	319,000원
코보(6인치)	200,000원
누크(6인치)	40,000원
카르타(6인치)	177,000원
평균	약 183,000원

사이다가 파악한 ‘전자책 리더기 장점’

1. 전자 잉크를 사용하여 백라이트 없이 종이처럼 빛을 반사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달하므로 휴대폰이나 패드에 비해 장시간 글을 읽어도 눈이 아프지 않다.
2. 스마트 기기에 비해 배터리 소모가 적다.
3. 크기 6~7인치, 무게 150g 내외로 대부분 크기가 작고 가볍다.

사이다가 파악한 ‘전자책 리더기 단점’

1. 페이지 새로고침 시 깜빡임이 있고 잔상이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2.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자책 리더기는 대부분 컬러를 지원하지 않는다.
3. 필기 기능이 없는 것도 있다.

3. 전자책을 빌려 읽을 수 있는 서비스는 어떤 게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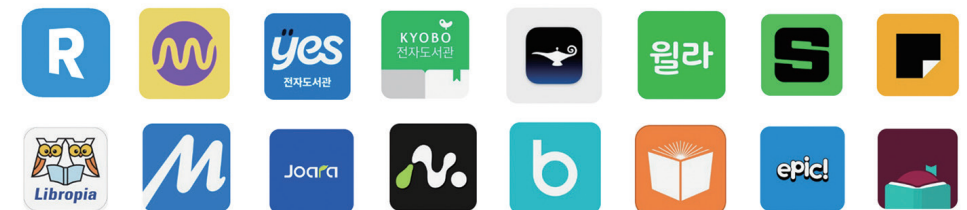
책을 사지 않고 빌려 읽을 수 있는 전자책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서비스가 인기 있는지 알아보았다. 요즘은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많아졌다. 앱에서 직접 책을 구매할 수도 있고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책을 많이 읽는 친구들은 월정액 요금을 내고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저렴하고 좋다. 그리고 지역 도서관과 연계된 무료 전자책 도서관도 많아 대출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예약도 없이 바로 전자책으로 대출이 가능했다. 회원가입만으로 외국의 어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 구독형 서비스: 밀리의 서재, YES 24 크레마클럽, 리디북스의 리디셀렉트, 교보 SAM, 알라딘 e-book, 윌라오디오북, Epic, Libby 등

▶ 무료 전자도서관: 교보전자도서관, YES24전자도서관, 국회전자도서관, 교육청 전자도서관, 부커스(지역전자도서관 연계), 북큐브, 리브로피아 등

▶ 웹소설 플랫폼 : 네이버시리즈, 카카오페이지, 리디북스, 문피아, 조아라, 미노벨 등.

▶ 기타 서비스 : 샛책방(롯데백화점), 하늘책방(에어부산) 등



직접 가보기(책 제작 과정 알아보기)

[방문지]

1. 파주출판단지 출판산업체험센터(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45 지혜의 숲 1관 3층)

https://www.bookcity.or.kr/bbs/content.php?co_id=sub02_2

2. 활판인쇄 박물관 활자의 숲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45 지혜의 숲 1층)

<http://www.letterpressmuseum.co.kr>



우리는 종이책이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파주출판단지를 다녀왔다. 출판문화센터에서 실제로 종이책을 만들

어 보고, 활판인쇄박물관에서 활자와 인쇄의 역사에 대해 배웠다.

1. 종이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출판기획, 글쓰기, 출판 편집, 인쇄, 유통의 단계를 거친다. 우리는 POD 방식을 이용하여 '어린왕자' 책을 한 권 만들어 보았다. POD 방식이란 디지털 인쇄를 이용한 출판 형태이고 보통 주문형 출판에 많이 사용된다고 한다.

2. 활판인쇄는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

전통의 활판인쇄는 4명의 기공이 필요하다. 활판을 제조하는 주조공, 제작된 활자를 찾는 문선공, 찾아낸 활자를 조립하는 식자공, 인쇄하는 인쇄공 4명이 모였을 때 비로소 활판인쇄가 가능했다.

사이다의 비판적 생각

활자들이 모여 이야기가 되고, 이 이야기들이 모여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진다. 전통의 방법과 현대의 방법으로 각각 책을 만들어 보니 방법은 다르지만 둘 다 소중하고 의미 있게 느껴졌다. 특히 찍어낸 글자들이 책이 되는 과정들을 경험해 보니 그 속에 담긴 이야기들이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우리 팀처럼 생각되기도 했다.

알아보기

② 물어보기

직접해보기

우리는 출판과 독서 관련하여 종이책 출판사 대표, 전자책 제조업체, 유통 플랫폼 회사, 문헌정보학과 교수, 안과 의사 등 관련자 10명을 찾아서 인터뷰를 요청했다. 미리 사전에 질문지를 작성하여 드린 후 이메일,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대상	인터뷰에 응해 주신 분
출판사 관계자 3명	후즈갯마이테일 황정혜 전자책 전문 출판사 디즈비즈북스 노진경 파주 출판산업체험센터 투어 담당자
문헌정보학과 교수 3명	숙명여대 문헌정보학과 김현정 교수 한양대 문헌정보학과 유영만 교수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임여주 교수
전자책 기기 및 플랫폼 관계자 2명	전자책 단말기 제조업체 이노스페이스원 담당자 전자책 유통 플랫폼 밀리의 서재 박지영
건양외대 김안과 병원	백내장 센터장 김병엽 교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플랫폼정책연구센터 박유리 센터장



Q1. 책 한 권에 매겨지는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황정혜: 인쇄, 책을 만드는 제작비(종이+인쇄비용), 책 표지 및 본문 디자인 비용, 외국책일 경우 번역비, 책이 나온 후의 마케팅 비용이 합산되어 평균 한 권 당 10,000~15,000 정도로 책정됩니다.

노진경: 전자책은 기본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콘텐츠의 종이책과 비교하여 다소 낮은 가격으로 정합니다.

박지영: 전자책 단가는 종이책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종이책 제작에 필요한 인쇄, 제작, 유통 시 물류비용 등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종이책 가격의 70% 정도로 일정 수준 할인해서 정합니다.

Q2. 책 한 권당 보통 얼마의 출판 비용이 드나요?

황정혜: 각양각색이지만 평균적으로 1천만원 정도입니다.

노진경: 전자책 출판 시 표지와 본문 디자인 비용이 발생하는데, 개인이 직접 책을 출판하는 경우는 비용이 적게 듭니다. 외부 전문가나 출판사에서 하게 되면 표지 디자인 비용이 가장 크며 총비용은 출판사마다 다릅니다.

박지영: 종이책을 전자책으로 변환하는 경우에는 권당 최대 20~30만원 선에서 충분히 제작이 가능합니다.

Q3. 책의 수명이 있나요?

황정혜: 책 한 권 자체의 물리적인 수명은 있겠지만, 고전 문학처럼 내용적인 수명은 다른 문화콘텐츠보다는 오래가지 않을까요? 물리적인 수명은 종이의 재질, 보관 방법에 따라 차이가 큼니다.

노진경: 전자책은 플랫폼에 파일 형식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저자나 출판사가 등록 취소를 하지 않는 한 판매 기한 없이 계속 플랫폼에 존재합니다. 콘텐츠 특성상 개정판을 출간하거나, 내용 수정 후 파일 교체로 최신 정보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박지영: 이론적으로 전자책은 유통 플랫폼에 유통이 되는 한 영원하고, 유통 플랫폼 등에 저작권자 및 출판사 등의 이슈로 인하여 유통되지 않을 경우, 종이책으로 따지면 절판과 같은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Q4. 전자책 시장의 성장과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진경: 책을 비롯한 모든 콘텐츠 카테고리는 전자화, 스트리밍화 되어 왔습니다. 독서 인구가 줄고 있지만, 전자책 구독률은 높아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전자책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전자책 시장이 커지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전자책은 종이를 사용하지 않으니 친환경적이고, 구매와 이용이 편리하며, 본문에 있는 단어 검색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전자책이 발행되면 좋겠습니다.

Q5. 전자책이 종이책보다 경제적인가요?

황정혜: 전자책이 종이책보다 가격이 저렴하니 ‘경제적’이라 할 수 있겠네요. 책을 끄는 물리적인 장소도 들지 않고요. 전자책 단말기를 따로 구입하지 않고, 핸드폰으로 본다면 더욱 경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김현정: 전자책이 종이책보다 저렴하고, 온라인 구독 서비스는 일정 금액으로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어 훨씬 경제적입니다. 종이책은 책을 보관할 공간도 필요하고, 먼지나 온도, 습도 등을 고려해야 하기도 하고요.

유영만: 종이책보다 전자책을 구매하는 것이 당연히 경제적입니다.

박유리: 이동과 보관이 용이한 점은 경제적이겠지만 전자책 단말기 구매 비용이 부담이 되어 접근성이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

Q5-1. 종이책과 전자책의 경제성을 따져볼 때, 혹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이노스페이스원 관계자: 전자책 단말기의 발달과 구매 경로 및 시간, 독서를 통한 정보의 습득과 접근 방식도 경제성을 따질 때 고려해 볼 요소라고 생각해요.

임여주: ‘경제적’이라는 기준은 무엇을,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출판사에서 책을 펴내는 비용이 기준인지, 책을 소장하고 대여하는 도서관의 예산이 기준인지, 책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독자가 책에 들이는 비용이 기준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박유리: 당장 각각 책의 단가로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후에 사회와 개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측면도 고려해 보면 좋겠습니다.

Q6. 2010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책 단말기 한 대의 3년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종이책 63권 분량 정도”라고 합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22권인데 전자책 단말기 외의 기기들도 비슷할까요?

박유리: 종이책과 전자책 제조 및 유통, 소비 등의 과정들을 모두 고려해서 탄소배출량을 산출했기 때문에 그간 기기의 종류, 제조나 유통과정에서의 변화와 탄소세에 관한 논의도 있었으므로 결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Q6-1. 전자책과 종이책이 개인의 눈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김병엽: 전자기기의 플리커(모니터 화면이 끊임없이 깜빡이는 것처럼 느껴서 메스꺼움, 구토, 두통 등을 유발함) 현상과, 청색광이 세포 단위에서 세포를 파괴한다는 일부의 보고로 청색광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둘 다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지만, 종이책을 읽을 때는 노출될 일이 없는 것들입니다.

Q7. 전자책과 종이책 각각의 장, 단점은 무엇일까요?

황정혜: 종이책은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볼 수 있다는 것, 종이책으로만 느낄 수 있는 ‘물성’이요. 책의 표지를 매끄러운 종이로 하는지, 거칠거칠하게 하는지, 표지 속 제목을 뿔록 튀어나오고 반짝반짝하게 만든다든지, 홀로그램으로 만드는데 따라 전자책으로는 느낄 수 없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지요. 특히 그림책의 경우에는 병풍처럼 펼쳐지는 책, 팝업북, 야광으로 만드는 책 등 종이책으로만 만들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영만: 전자책이 종이책에 비해 효율적이지만 효과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책은 읽기 쉽고 휴대가 간편하지만, 종이책이 주는 행복한 촉감과 물성은 전자책이 대체할 수 없어요.

노진경: 독자들은 전자기기에 많은 양의 전자책을 휴대하여 언제 어디서나 읽을 수 있고, 보관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AI의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고, 하이라이트와 메모 기능도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전자책에 다양한 콘텐츠를 링크시켜 동영상과 음성을 직접 삽입하는 등 책의 콘텐츠를 무한 확장할 수 있지요. 개인의 경우 자신만의 콘텐츠를

책으로 출간하여 경제적 수입을 얻을 수 있고, 개인 브랜드 관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PDF원고를 전자책처럼 판매하는 경우, 공유를 막을 수 없습니다.

박지영: 전자책은 물리적 제약에서 자유롭고 편리하게 끊임 없이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오래 보면 눈이 아프다는 견해가 있는데 점점 좋은 전자책 단말기가 나오고 있고,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잠깐씩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모든 도서들이 전자책으로 출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접근성이 낮다는 단점 또한 전자책 출판 시장의 진화에 따라 향후 해소될 거라 봅니다.

▶ 인터뷰를 통해 사이다가 배운 점

직접 만날 수 없는 분들에게는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했는데 친절히 답변을 주셔서 감사했다. 인터뷰를 통해 기사나 통계로 찾은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점이 좋았다.

우리가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것 중 그동안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다. ‘경제적’이라는 기준이 단순히 1명이 책 1권을 얼마에 살 수 있는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개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기사에서 볼 수 있었던 탄소세, 저작권, 탄소배출량으로 인한 환경적인 측면까지 모두 경제성을 따지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금까지 찾았던 내용들을 보다 자세히 알 수 있어서 팩트에 한 발 가까워진 느낌이 든다.

직접 실험해볼 수 있는 방법

우리는 사람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전화와 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은 8개 질문으로 구성했고, 2024년 6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8일간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모두 179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설문내용

E-Book,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상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청량한 4명의 친구가 모인, 사이드'입니다. 저희 사이드는 함께 팻트 체크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E-Book이 종이책보다 경제적인가?'에 대한 다양한 연령층의 의견을 들어 보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며, 모든 설문은 팻트 체크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향후 팻트 체크 조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응답자의 성별에 체크 해 주세요.

☐ 여자 ☐ 남자

• 응답자의 나이에 체크 해 주세요.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그 외

• 응답자의 직업에 체크 해 주세요.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대학생 ☐ 직장인 ☐ 그 외

• E-Book(전자책)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 있다 ☐ 없다

☒ E-Book은 '패드'나 '핸드폰'과 같은 전자기기로 읽는 디지털 책입니다

• E-Book(전자책)을 이용해 본 적 있나요?

☐ 있다 ☐ 없다

☞ '있다'라고 응답했다면,

☞ 어떤 기기로 이용해 보았나요? 이용해 본 적 있는 것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 전자책 전용 기기(킨들, 크레마 등) ☐ 스마트 학습기기(엘리하이, 아이스크림 홀런, 밀크티 등)
☐ 전자사전 ☐ 패드나 핸드폰(일리의 서재, 윌라, 온라인 도서관) ☐ 기타

☞ 어떤 종류의 전자책을 이용해 보았나요? 이용해 본 적 있는 것에 모두 체크해 주세요.

☐ 소설(이야기책) ☐ 만화 ☐ 전문서적 ☐ 학습서(문제집 등) ☐ 잡지 및 뉴스

• [E-Book]과 [종이책] 중 어떤 것을 더 좋아하나요?

☐ E-Book(전자책) ☐ 종이책

☺ 'E-Book(전자책)'이라고 응답했다면, E-Book(전자책)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1가지만 선택해주세요)

☐ 한 기기에 많은 책을 저장할 수 있어서 ☐ 무겁지 않아서 들고 다니기 편해서 ☐ 가격이 저렴해서
☐ 책을 쉽게 찾고 빨리 구매할 수 있어서 ☐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어서 ☐ 기타

☺ '종이책'이라고 응답했다면, 종이책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1가지만 선택해주세요)

☐ 책장을 넘기는 느낌이 좋아서 ☐ 집중하기 더 쉬워서 ☐ 더 예뻐서
☐ 눈이 덜 피곤해서 ☐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어서 ☐ 기타

• [E-Book]과 [종이책] 중 무엇이 더 경제적일까요? ☐ E-Book(전자책) ☐ 종이책

☺ 'E-Book(전자책)'이라고 응답했다면, 'E-Book'이 더 경제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1가지만 선택해주세요)

☐ 종이책보다 책 구매 비용이 저렴하니까 ☐ 한 번 사면 여러 기기에서 읽을 수 있어서
☐ 배송비가 들지 않아서 ☐ 제작하는 비용이 더 적게 들어서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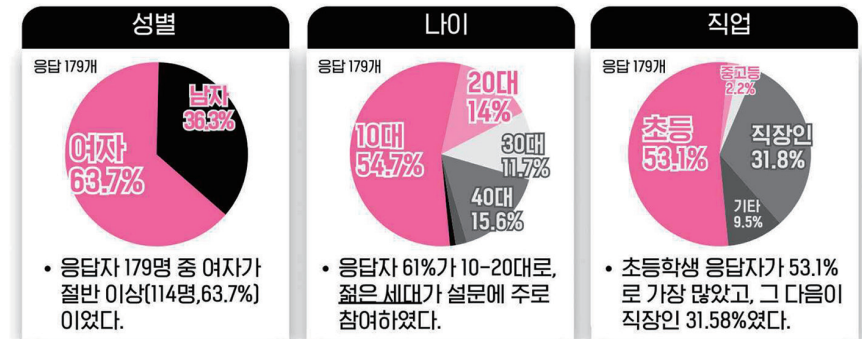
• [E-Book]과 [종이책] 중 무엇이 더 환경적일까요? ☐ E-Book(전자책) ☐ 종이책

☺ 'E-Book(전자책)'이라고 응답했다면, 'E-Book'이 더 환경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1가지만 선택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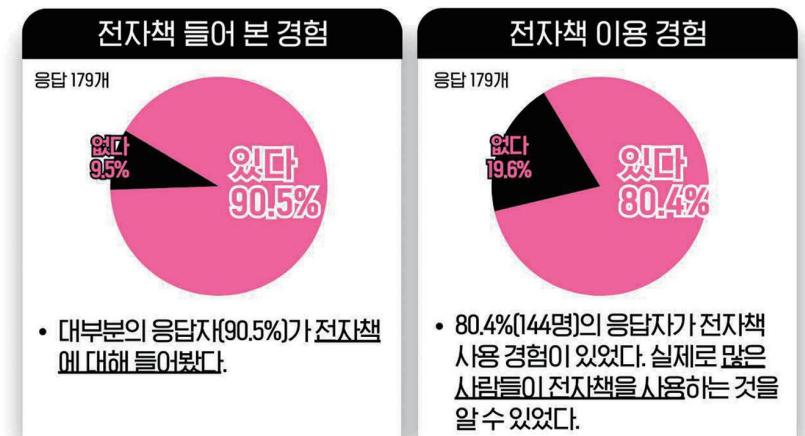
☐ 인쇄와 배송 과정에서 에너지를 덜 사용해서 ☐ 쓰레기와 폐기물이 적게 나와서
☐ 나무를 보호할 수 있어서 ☐ 제작하는 비용이 더 적게 들어서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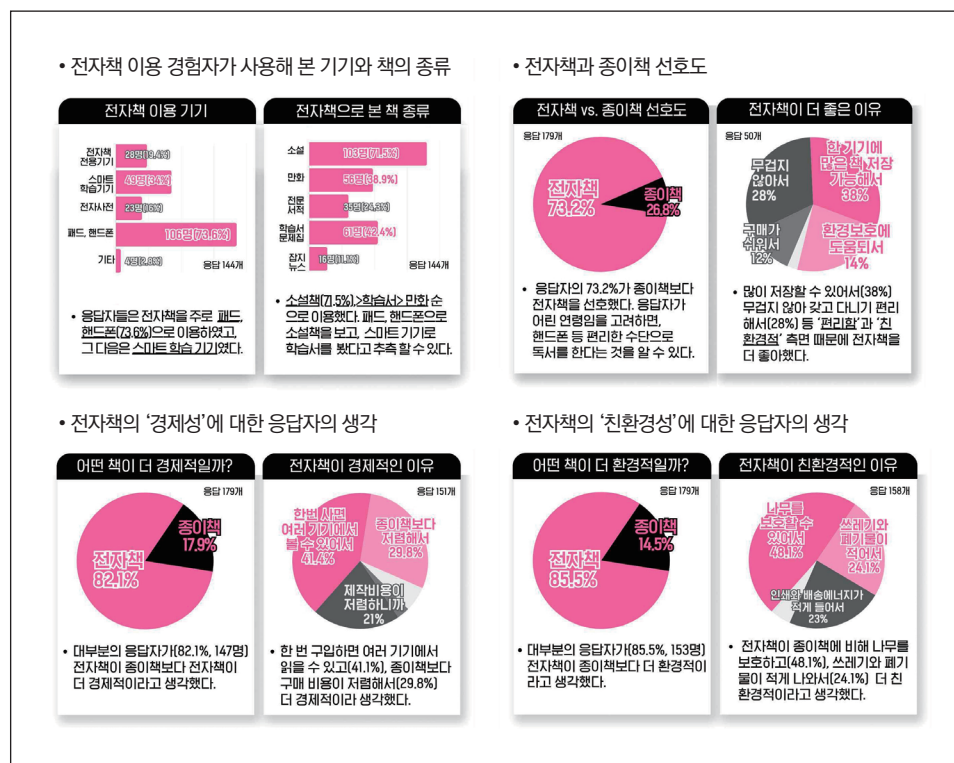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응답자 기본 정보



• 전자책 이용 경험에 대한 응답





전자책이 경제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선택할 수 있도록 예시 문항을 적는 것도 회의를 길게 해야 했다. 설문조사에서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 충실히 나타났으면 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이외에 답변자들이 고를 것 같은 보기를 찾기 위해 이전에 검색한 뉴스 기사 등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설문 과정 중에 전자책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전자책에 관해 설명을 해주기도 했다.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사실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이 전자책 경험이 있었고, 편리성과 휴대성 때문에 종이책보다 전자책을 더 선호한다고 대답했다. 예상대로 많은 사람들이 전자책이 훨씬 경제적이라 생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구매 비용 및 나무 보호와 폐기물 배출을 고려하면 전자책이 친환경적이라고 응답했다.

또, 10~20대로 구성된 대다수의 설문 응답자의 설문 결과가 앞에서 살펴본 '2023 국민 독서실태조사'의 20대 전자책 선호도와 일치했다. 10대 학생들 또한 앞으로의 전자책 사용 확산에 영향을 줄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설문을 준비하는 과정 중, 팩트체크 내용을 설문에 잘 반영하기 위한 질문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다. 우리는 전자책과 종이책 중 무엇이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하기 전에, 친구들이나 어른들이 전자책 이용해 본 경험 조사를 먼저 하기로 했다. 또,

결론 작성하기

우리는 “전자책이 종이책보다 더 경제적일까?”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전자책에 대한 경제성에 대한 팩트체크를 하였다.

▶ ‘전자책 1권은 종이책 1권보다 저렴하다?’ – 그렇지!

출판 관계자들에 따르면 종이책 1권의 가격은 평균 10,000~15,000원으로 책정된다. 전자책으로만 출판한다면 제지, 인쇄, 유통 물류비 등이 절감되어 전자책의 가격은 종이책 가격의 약 70 정도 수준으로 책정된다.

따라서 책 1권의 가격만으로 따져보았을 때 전자책은 종이책보다 저렴하다.

▶ ‘책의 가격으로만 경제성을 판단해야 할까?’ – 그렇지 않다!

단순히 책 한 권의 가격만으로 비교할 때는, 전자책이 종이책보다 경제적이다. 설문 조사에서도 82.1%의 사람들이 권당 비용이 저렴하고 휴대성이 높다는 이유로 전자책이 더 경제적이라 답하였다. 그러나 전자책의 경우 이북 리더기(평균 183,000원)의 구매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따라서 경제적이라는 측면은, ‘책 1권의 단가’로만 판단해서는 안된다.

“경제적이라는 기준은 무엇을, 누구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책을 소비하는 독자가 책에 들이는 비용 기준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부산대 임여주 교수)

“당장 각각 책의 단가로만 경제성을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후 사회와 개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측면도 고려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유리 센터장)

2010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자책 단말기 1권의 3년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종이책 63권 분량 정도이다. 즉, 1년에 22권 미만의 종이책을 읽는 사람이 전자책을 이용할 때는 오히려 탄소 배출량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 전자책 유통과 관련한 저작권 및 보안 관리 부족으로 여러 차례의 대규모 유출 사건이 발생해 출판계에 피해가 매우 컸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책 웹서버와 뷰어의 취약점 제거, 사용자 검증 강화뿐만 아니라 향후 출판업계와 유통사의 공동 시스템 구성에도 여러 인력과 비용이 든다(출처: 김민수 기자, “출협 ‘전자책 유출 피해 보상 만족스러운 결과 못 내 송구’”, 노컷뉴스, 2024년 5월 20일)

그러므로 탄소 배출량이나 데이터 보호 문제와 같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누적되어 앞으로 반드시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전자책 산업 활동 유지와 안정화에 드는 비용 등의 여러 측면을 함께 고려할 때, 전자책이 종이책보다 훨씬 경제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 앞으로 전자책을 통한 독서 형태는 계속 늘어난다? – 그렇다.

전문가들은(디즈비즈북스 노진경 외 인터뷰) 사람들이 종이책의 물성을 선호한다고 해도, 전자책의 강점인 휴대성, 온전한 독서환경 조성, 저렴한 가격, 그리고 전자책 단말기의 빠른 발달 상황을 비추어, 앞으로 전자책이 종이책보다 더 많이 활용될 것

으로 예측했다. 또한 성인의 종이책 독서율은 2년 전 대비 감소한 것에 반해, 전자책 독서율은 소폭 상승한 점, 학생의 도서 구입량의 절반이 전자책 구입인 것으로 볼 때 앞으로 전자책 독서와 구매가 더욱 활발해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출처: 2023 국민독서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그렇다면, ‘슬기로운 전자책 이용’ 어떻게 해야 할까?

새로운 법과 제도가 필요해요!

전자책 유출로 인한 불법 공유 시, 저작권을 지킬 수 없다. 전자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전자책 이용 기한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종이책과 달리 전자책은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종류로 구분된다. 따라서 전자책 유통 회사가 특정 전자책의 유통을 중단하면 구매자는 이전에 구매해 둔 책을 더 이상 읽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전자책의 특성을 이해하고 유통사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한을 법제화하거나, 구독 기간별로 적당한 가격이 책정된다면 보다 많은 사람이 안심하며 저렴하게 독서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독서와 건강, 함께 지켜요!

전자책 이용 시 시력 저하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과 같이, 전자책 독서 시 종이책에 비해 다양한 건강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개인적 노력뿐 아니라, 시력 보호 기능에 대한 기기 인증제도, 전자책 안전 이용 가이드 제공(화면과의 30cm 적절한 거리 유지, 전용 거치대 사용, 주기적인 눈 휴식) 등의 제도적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새로운 독서 패턴. 즐겨요!

앞으로 더 많은 책과 발행물이 전자책으로 발행될 것이다. 옛 시인 두보는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다섯 수레의 책을 읽어야 한다고 했다. 전자책이 두루두루 활용될 시대를 앞둔 우리는 종이책이 담긴 ‘수레’가 아닌 ‘전자책 단말기’에 보유한 전자책 권 수로 독서량을 가늠해야 할 때가 오는 것이다. 편리성과 높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전자책, 그 새로운 경험을 즐겨보자!

미디어 콘텐츠

‘싸다왕’ 도서편 - 전자책과 종이책의 대결

콘텐츠 소개

⊗ 기획의도

전자책이 종이책보다 경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전자책과 종이책 한 권의 단가만을 비교하는 것으로는 경제성을 판단하기에 불충분하며, 전자책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환경과 보안, 건강 문제의 해결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한다. 이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전자책 이용이 더욱 많아질 것이기에 현명한 전자책 독자가 되는 방법을 전해주고, 함께 실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상세설명

세상의 모든 물건과 서비스의 경제성을 판단하는 ‘싸다왕 대결 프로그램’에서 이번에는 전자책과 종이책의 경제성을 다룬다. 본격적인 대결 전, 일반 시민들의 예상은 전자책이 경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대결이 시작되자 전자책은 ‘저렴한 가격’이라는 가장 큰 무기를 들어 종이책을 몰아세운다. 지식 전달의 전통을 이어왔다는 자존심을 내세웠던 종이책은 강력한 가격 공격에 휘청거리며 큰 위기를 맞는다. 그러나 이때 사이다 패널들의 여러 분야에 걸친 팩트체크가 등장하며 승부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나무를 덜 사용한다며 환경비용이 적게 든다’는 전자책에게 종이책

은 탄소 배출량 수치를 제시하며 반격한다. 연이어 종이책은 전자책이 ‘저작권 보호와 보안 강화를 위한 비용’을 더 들여야 하며, ‘눈 건강을 해칠 요소’가 있음을 들어 곁으로는 저렴하게만 보이는 전자책을 난처하게 만든다.

사이다 패널들은 전자책과 종이책의 경제성을 판단하기에는 사회와 개인이 잠재적으로 부담하게 될 비용이 있음을 지적하며 단순히 책 한 권의 단가만을 비교하는 것으로는 승부를 낼 수 없다는 의견으로 ‘싸다왕 대결’을 새롭게 마무리 짓는다.

그리고 팩트체크 중 밝혀진 전자책 이용률의 증가를 들어 전자책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면 전자책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음과 동시에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가는 미래 사회의 슬기로운 독자가 될 것이라고 제안한다.

▶ 사이다의 웹툰





홍보 및 캠페인 활동

웹툰을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

사이다 팀은 오프라인 캠페인과 온라인 홍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오프라인 캠페인으로 직접 시민들에게 팩트체크 활동과 활동의 결과물을 소개해 보고, 현장의 반응을 토대로 적정 길이와 내용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에게 홍보하기로 한 것입니다.

▶ 사이다의 콘텐츠 활용 사진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주말 오후 대학로에서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을 만나보고자 했습니다. 마로니에 공원에서 대

학로 사거리에 이르는 현장에서 전자책과 종이책 중 어떤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이후에 팩트체크 결과를 알려드리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스티커를 붙여서 신속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알아볼 수 있는 설문조사 판을 준비하고, 안내 자료로 나눠 드릴 웹툰 퍼즐과 팩트체크 결과 안내지를 만들었습니다. 웹툰 퍼즐은 우리가 그린 웹툰의 주요 장면을 퍼즐 판에 붙인 것으로, 퍼즐을 맞추고 나서 완성된 그림을 순서대로 보다 보면 팩트체크 결과가 자연스럽게 보이게 만들었고, 안내지에는 팩트체크 결과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내용만 담아 보았습니다. 웹툰 퍼즐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거나 재미있는 캠페인 참여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와 같은 초등학생분들께 제공하였고, 안내지는 바쁘신 분 혹은 팩트체크 결과를 먼저 알고파 하시는 분께 전달하였습니다.



▶ 사이다의 콘텐츠 활용 유튜브

대학로 캠페인을 마친 후, 우리의 팩트체커 활동 내용과 캠페인까지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생동감 있으면서도 의미 있는 팩트체크 과정이 담긴 영상을 담아 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영상은 우리와 같은 초등학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에게 친숙한 유튜브를 선택하여 팀장 해든이의 계정에 저희의 콘텐츠를 업로드하여 온라인 홍보를 이어갔습니다.



신해든

작년 팩트체크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올해에 도전할 용기가 났습니다. 처음에 경제 관련된 주제 정하기가 어려웠지만, 혼자가 아닌 친구들의 의견을 모아 주제를 선정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팩트체크 과정에서 작년보다 기사 검색과 전문가 인터뷰를 깊고 다양하게 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선 과정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인터뷰하는 것이 처음이고, 어른께 인터뷰하는 것이 쑥스럽기도 하고 떨렸습니다.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미리 응답지를 만들어 보고 또 인터뷰 할 분께 연락을 드리니 그래도 좀 편하게 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학교 친구들에게 설문지를 받을 때 어떻게 하면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친구들이 귀찮아서 해주지 않을 것 같았는데, 막상 이번 팩트체크 주제를 알려 주고 부탁하자 많은 친구가 응답해 주어 기뻐했습니다. 본선에 진출하게 되어 기쁜 것도 잠시, 웹툰을 만드는 것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패드를 활용하여 사진 위에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배우며 그리는 것과 만든 웹툰을 공개하고, 대학로에서 캠페인을 벌이며 우리의 결과를 알리는 과정도 무척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팩트체크 과정을 통해 어떤 사실을 바라볼 때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경제적=싼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는데, 인터뷰를 통해 경제적인가를 따져볼 때, 환경이나 저작권 등 보이지 않는 것들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에게 이 주제 말고도 다른 주제로도 더 팩트체크에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김아린

처음엔 '경제'라는 단어가 주는 어려움과 두려움에 놀랐습니다. 지하철, 우유 급식 등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경제 관련 주제를 찾던 중 "우리 전자책 많이 보잖아? 이건 어때?"로 이견을 좁힐 수 있었습니다. 설문 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우리처럼 책을 보는 사람은 많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또, 전자책을 종이책

보다 더 저렴하게 사거나 무료 대여가 가능하니 당연히 전자책이 경제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팩트체크를 해보고 설문 조사를 해보니 우리가 당연히 생각했던 사실도 아닐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번째 팩트체크 대회 참가인데도 항상 팩트체크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해 주어 너무 신기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우리 팀이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심장이 떨렸습니다. 우리의 주제가 다른 이들에게도 신선하게 느껴지고 ‘경제’ 주제에 잘 와닿았다는 사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작년과 다르게 웹툰 제작과 홍보 활동을 본선에서 해야 한다는 사실에 걱정이 너무 컸습니다. 과연 우리가 웹툰을 그리고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홍보 활동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팀원들과 여러 번 회의를 통해 고민하였습니다.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 컷, 한 컷에 내용을 담아 보고 우리의 표정으로 그 내용을 표현하고자 해 봤습니다. 새로운 활동과 경험을 통해 또 한 번 성장한 것 같습니다. ‘당연할 것 같은 사실도 아닐 수 있다’를 알려준 팩트체크 활동!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정확하게 팩트체크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주하

처음으로 팩트체커가 되어 보았습니다. 어떤 사실을 이렇게 골똘히 고민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주변의 사실들을 한 번쯤 다시 조사해 보는 습관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선 과정에서는 주제를 정하는 게 제일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설문지를 만들 때 어떤 질문을 넣어야 제대로 설문자들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설문 조사를 하는 것도 조금은 낯설고 부끄러웠지만, 친구들에게 설문지를 받았을 때는 아주 뿌듯했습니다. 넷이 모여 회의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팀 활동의 무한한 장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모자란 부분은 친구들이 채워주어서 많이 배우게 되었고, 함께 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은 어렵지만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본선 진출 소식을 들었을 때도 넷이 함께 있어서 그 기쁨이 4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 선생님들의 애정 어린 피드백을 보며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본선 과정은 예선과는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해 둔 내용을 웹툰으로 제작하고 캠페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웹툰을 그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일단 사진으로 동작을 찍어 따라 그리는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그러나 역시 쉽지는 않았지만 재미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에서의 캠페인 활동도 너무 어색했지만 이제 추억으로 남아있을 거 같습니다. 하나의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팩트체크를 통해 알게 되었고 이 경험은 앞으로의 저의 모든 활동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저는 넘쳐나는 뉴스들 속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을 현명하게 골라내어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멋진 팩트체커가 되겠습니다.

최우영

평소 친구들과 ‘팩트야?’, ‘팩폭!!!’이라는 말 들을 쉽게 쓰곤 했는데 팩트체크를 직접 해보니 저희가 찾아낸 정보가 실제로 ‘팩트’인지 확인해 보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팀원들과 처음 만나서 주제를 정하던 때부터 인터뷰하고 직접 자료를 찾고, 웹툰을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캠페인을 벌이기까지 모든 순간이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초반에는 인터뷰를 위해 질문지를 만드는 것이 특히 어려웠습니다. 팩트체크에 꼭 필요한 질문을 넣어야 해서 수정을 많이 했습니다. 용기 내어 드린 인터뷰 요청에 답변이 어렵겠다는 답변을 들었을 때는 너무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준비한 질문에 정말 정성 들여 써 주신 답변을 받았을 때는 마음이 사르르 녹았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전문가 선생님들 덕분에 더욱 의욕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저희의 보고서가 본선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은 정말 행복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여러 번 읽으며 팀원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미디어 제작 활동과 캠페인은 보고서의 내용을 간결하지만, 효과적으로 나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캠페인을 시작할 때는 너무 쑥스러워 캠페인 문구를 적은 장갑 속에 숨을 수 있는 게 고마울 정도였지만, 바쁜 중에도 스티커를 붙여주시고 우리의 활동을 기특하게 봐주신 분들이 늘어날수록 목소리도 커지고 더욱 용기가 났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분들께 우리가 팩트체크한 사실을 알려드리게 되어 뿌듯했습니다. 저는 팩트체커로 활동하면서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처럼 눈에 드러나는 사실 속에 안 보이는 부분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론을 내리기 전에 놓친 점은 없는지 한 번 더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팩트’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으니, 일상에서 얻는 정보 중 그럴듯한 정보도 근거를 꼭 확인해 보는 평생 팩트체커가 되겠습니다.